

## 해외교육훈련보고서

# 베트남 지역환경 현황과 시사점

훈련기관: 베트남 농업농촌환경연구원(VIEAC)

훈련기간: 2016. 1 ~ 2016. 12

2017년 1월

제출자: 정 중 관



## 베트남 교육훈련 기행록

정종관(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도차이나 3국 개관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전체 면적 75만km<sup>2</sup>로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닮지 않은 모습들도 많다. 국토공간 구조의 차이로 공간적 모습은 베트남은 쌀바구니를 양쪽에 매단 긴 지게 형태를 띤다. 라오스는 열쇠 형태로 막다른 골목이라 불릴 만큼의 내륙 국가의 속성이 있으며, 캄보디아는 밥그릇 형태로 구릉(프놈)과 하천(스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생산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수리학적 하천공사, 캄보디아의 물고기 어업의존 상황, 라오스의 산악지역 화전에 의한 조방농업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 여건에 따른 경제, 주거, 식생활, 복장 차이가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인 마을단위 조직형태는 국민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마을전통이 왕권을 능가한다<sup>1)</sup>는 믿음이 있는 베트남 농부는 마을에서 조화를 추구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고슴도치 자세를 취한다. 이에 비해 산재형 취락 형태를 갖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하여 농업생산조합의 착근이 어려웠다. 특히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의 폴포트 정권시절 도시민 下放 극단주의 경험으로 도시민과 현지 농민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다낭 점령(1858)을 시작으로 하노이 점령(1873)과 아르망조약(1883)에 따른 홍강 개방 이후, 코친차이나, 안남, 톤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5개 지역을 보호령으로 결합한 인도차이나 연방(1887)이 결성되어 1945년까지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프랑스 식민세력은 인도차이나 정복이후 1900년을 기점으로 식민정부가 마을경제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부 정책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프랑스 기업가에게 불하하여 운영하였고, 농업소득세를 수확량의 1/5로 인상해 근대국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식민화에 따라 광산, 농장, 도시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마을에서 지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의 마을에서 지지기반은 확대되었다.

북베트남 토지개혁운동(1945~56)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마을 공동토지가 폐지되었고, 사회주의 대생산체제 4대 요소로 계획경제화, 정치 사회주의화, 기술근대화, 집산화 과정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은 공산화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인구의 재분포를 위한 분산화 정책과 신경계구역 설정으로 인구균일화, 미개척지 개간, 도시실업 해소, 국토방위, 작업분배 제도화, 유목민 정주화 기능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의 지역공동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Stanley Taylor Plan이라는 전략촌(strategic hamlet)<sup>2)</sup> 건설(1961) 수행과정에서 이농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도차이나 30년 전쟁(1945-75) 이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는 공공서비스와 화폐체제를 폐지하고 교환 및 분배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경제 구조는 총생산가치<sup>3)</sup>로 평가하는데

1) Phep vua thua le lang (왕의 명령이 마을 규칙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음

2) 전략촌은 말레이 반도에서 1950년대 영국군이 공산화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어적 마을집단 개념에서 도입되었음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은 낙후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지하자원, 에너지, 삼림, 인적자원이 풍부한 장점으로, 열대 및 아열대 삼림은 金林銀海의 자원이라 할만하다. 대표적인 수자원으로는 연간 유출량이 1,200억톤에 달하는 북부의 홍강과 세계 12위 5,500억톤에 달하는 남부의 메콩강이 있다. 단점으로 인구 대 토지비율이 불리하고, 환경오염, 인구폭발, 지역간 경제 격차완화가 국가 과제이다. 그리고 통일과정(1975~83)에서 7천명이 戰犯 교도소로, 정치적 숙청 추정치는 최소 6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너른 평지와 풍요로운 자연이 있으나 빈곤타파 문제가 주요 과제이며, 톤레삽호수와 메콩강의 연간 어획고가 15~20만톤에 이를 만큼 많다.

라오스는 고급 수종인 샌들우드를 비롯하여 지하자원과 수력발전 잠재량이 42,000MW에 이를 만큼 풍부하나, 기반시설 건설, 원자재 상업화 이용, 에너지개발, 식량자급자족, 인력양성과 교육, 위생개선 등이 국가개발의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종교문화와 가치관을 보면 베트남은 대승불교(마하야나)가 기조로 자비불교이나,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소승불교(히나야나)로 자아구원과 테라바다(上座部)라고 하는 개인 중심의 가치관을 띠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으로 노인공경과 조상을 모시는 효도 정신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국민성과 종교적 철학 관점에서 현실을 수용하여 대체로 낙천적인 성향을 띠는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형태를 갖는 정치적 특징으로 불교와 맑스주의의 공통점으로는 보편 평등, 개인부정, 무계급을 지향하는 점이다. 다른 점으로는 맑스주의는 해방철학과 물질주의 위주의 카르마와 모순되는 운명결정주의 성향을 갖는다.

### 드영림 전통마을

드영림 전통마을은 하노이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홍강 옆에 위치하여 베트남의 흥망성쇠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마을 입구의 패방(牌坊; 베트남 전통 건축양식으로 구성된 4개 기둥의 문)을 지나면 마을의 고요함과 옛날의 문화가 담겨있다. 오래된 패방 뒤로 300년 된 벵골보리수(banyan tree)와 견고한 적갈색 라테라이트(laterite) 벽으로 만든 기와집, 골목, 마을공회당, 오랜 우물, 사원, 교회당 등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공간에는 모두가 한 농촌마을의 풍습과 쌀 문화의 흔적이 많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 농촌마을은 외부의 적 침입에 대한 방어가 용이하도록 외각은 대나무로 둘러 쌓여 있는데다가 가옥배치와 마을 안길은 외통수(cul-de-sac)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마을의 자연경관 구성요소인 벵골보리수, 우물터, 패방, 전통가옥, 공회당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 몽푸(Mong Phu)정자는 1984년 문화정보부에 의해 국립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다. 몽푸정자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생활 중심으로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어 공동체의 집(communal house) 역할을 하는데 남서향의 입구가 있다. 이 건물은 1684년 레 왕조 히퐁(Hy Tong) 왕 시절에 세워진 후 응웬왕조 민망(Minh Mang) 왕 시절에 중건된 북부 농촌의 대표적인 고전건축물이다. 풍수학적으로 드영림 마을은 용의 형상을 한 땅에 자리잡고 있는데, 용의 머리는 몽푸정자에, 눈은 정자 옆의 두 개의 우물, 수염은 골목길이며, 꼬리는 이웃

---

3) 공산국가의 생산개념으로 일정 기간 생산된 물자와 물질적 성과들의 총 가치로 나타낸다. GDP와 비교하여 비생산적으로 간주되는 3차 산업은 제외되며, 농림업, 어업, 공업, 건축, 운송, 산업, 무역 등에서 나타나는 생산의 양적 결과만 고려하고, 생산품질이나 작업분화의 다양화에서 부가적으로 획득되는 가치는 계산되지 않음

한 사이(Sai)라는 마을에 해당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마을에는 중국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선언한 8세기 보까이다이브영(布蓋大王)으로 불리는 풍흥(Phung Hung), 10세기 중국의 침략을 물리친 응오꾸옌(Ngo Quyen) 등 두 명의 왕과 베트남 독립여걸 하이바쑹의 어머니인 만티옌(Man Thien)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을 두 황제의 땅이라고도 불린다.

#### 대기오염과 오토바이

하노이시 인구는 700만 명이지만 시에 등록된 개인용 차량은 오토바이 490만대를 포함해 총 550만대에 이르고 있다. 도로 1km 당 오토바이가 평균 700대로 자동차 70대의 10배에 달한다. 베트남 전체로는 오토바이가 4430만대(2016년 9월 베트남 교통부 등록 기준)에 달하지만 자동차는 200만대에 불과하여 도로의 오토바이 물결은 도시의 활기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다. 베트남 인구 9400만명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 18세 이상만 오토바이를 소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인 4명 중 3명이 오토바이를 보유한 셈이다. 여기에는 과중한 자동차 세금, 불편한 대중교통수단, 미흡한 도로시설 등이 오토바이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오토바이제조협회(VAMA)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오토바이가 국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2020년 360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예측을 훨씬 뛰어 넘는데다가 연간 6% 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구매력이 향상되고 있어 오토바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노이시의 응웬득쑹 인민위원장은 앞으로 4~5년 내에 하노이시의 오토바이가 700만대로 늘어 교통체증이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용 차량억제와 대중교통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교통난과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2025년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대기오염의 원인으로는 매연, 먼지 및 질소산화물 증가가 꼽히고 있는데, 도시 외각의 택지개발 등 공사현장, 대형 트럭 운행, 오토바이의 절대적인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대기질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도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폐암은 남성사망률 1위, 여성사망률 2위를 기록할 만큼 매년 22,000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19,500명이 사망한다(뚜오이체 뉴스, 2016. 9).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0만명당 폐암 발생률을 비교하면(한국 남자 16,750명, 여자 7,277명, 2014년 기준) 한국 47명에 비해 베트남은 24명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한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위협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도시교통

남부의 인구 900만인 호치민시는 도심에 보행자 거리를 만들어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주말저녁에 개인용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2026년까지 도시철도 8개 노선 건설을 통해 도시교통량을 처리하고 대기오염을 완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행할 구간이 깃랑~하동, 논~하노이역 2개 노선으로 20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특히 논~하노이역 구간은 도시를 관통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고 있다. 효과적인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일 노선만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3~4개 노선이 서로 연결되어야 도시철도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급행버스시스템(BRT)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신도시지역에

정차역이 세워진 곳도 있으나 버스 전용차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중앙분리대, 교통신호체계, 안전차단시설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규모 도로교통 기반시설 설치 운영 소요비용 조달이 외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적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력수요 및 에너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15년 발표한 “베트남 전력수요조사 2015” 보고서에서는 전력수요는 매년 전년대비 10%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 발전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어 1인당 GDP는 1995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 7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설비 역시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베트남 정부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전력개발계획인 제7차 국가전력마스터플랜(PDP7)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총 330,000~362,000GWh 수준을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대비 2.3~2.5배 증가한 수준으로 해마다 약 14%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전원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원동력으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DP7에서는 2020년까지 농촌지역 전세대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화율은 96.5% 이나 산악지역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풍력발전 잠재능력은 513,000MW로 이는 2020년 전력수요량의 10배에 달하는 용량에 해당한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우선순위가 높은데, 전력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4.5%(1,000MW), 2030년까지 6%(6,200MW)로 상향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단위전력량 kWh당 10~12센트의 높은 생산단가를 갖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단가의 장비와 첨단기술 도입료에 기인한다. 점차 바람날개의 자체 조립, 콘크리트 터빈 기둥의 자체 생산, 운영인력의 양성을 통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단가를 kWh당 7.8센트 정도로 낮추면 수익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고기 폐사

하노이의 대표적인 호수 중 하나인 서호(Ho Tay)에서 물고기 폐사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2016년 9월 초에는 약 200톤에 달하는 잉어, 붕어, 누치 등 물고기가 폐사하여 건져냈다. 서호는 면적 약 150만평에 둘레 17km에 달한다. 주위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찌꺼사를 비롯한 역사유적이 많고, 베트남전쟁 중 1972년 전투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한 존 매케인(2008년 미국 대선 후보)이 생포된 곳이기도 하다. 수면적과 저수용량이 커서 충분한 완충능력이 있음에도 물고기가 죽어 분해되면서 악취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오던 어부들은 예전에는 대부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등 날씨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지만 올해는 날씨와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 일부러 고기를 잡기 위해 독성화학물질 살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호수주변의 작은 레스토랑과 찻집 등은 차집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폐수가 하루 4000톤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포모사하틴제철(FHS) 오염사고

2016년 4월 북중부의 하틴성 소재 대만계 포모사하틴제철(FHS)의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사고로 북중부 4개 지방(하틴, 광빈, 광치, 투아티엔후에)의 어패류 수산물이 대량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5월 2일 베트남 자원환경부에서는 베트남

학자 외에 미국, 독일, 이스라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베트남과학원 조사분석 요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오염분석기관이 없어 전국 단위의 학술단체지역사무소나 중앙의 국가기관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가는 상황이라 대처능력이 낮다. 보건성에서 9월 20일 발표한 내용은 어시장 및 연안양식어장에서 채취한 1040개 시료에서 시안화물, 페놀, 수은,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철화합물 등이 검출되었다. 그 중에 132개 시료(전체의 12.7%)는 페놀함유량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연안 5~25km내의 해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섭취불가로 판정하였다.

이에 6월 28일 포모사하틴제철(FHS)은 총 11조 5000억동(5억\$)에 달하는 금액을 4개 성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액으로 지급하고 주민 직업 전환을 지원하며, 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해양생태 복원에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주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경제 성장이나 환경보전이나 하는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지역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 환경산업

2010~16년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6~7%로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2017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대미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수출 규모 중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인데, 베트남을 원가절감의 생산기지로 임가공산업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5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있고, 현지기업 설립 형태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제는 베트남 기업 지분 확보가 가능하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베트남의 농촌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와 가내수공업 공장의 중간 정도 규모로 도자기, 벽돌, 비단 염색, 식품 가공을 주로 하는 소규모의 공예마을(craft village)이 3500여개가 있다. 여기서 미처리되는 폐수가 실개천과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어 대기 및 악취, 수질오염 민원이 되고 있다.

고형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연간 1280만톤 가운데 대도시 지역이 699만톤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여 대도시지역 집중도가 높다. 2020년에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22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집 및 운반 처리율은 83%에 불과하여 긴급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국 755개 도시지역 중 80~85%의 매립지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침출수 및 악취 등 생태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모사하틴제철(FHS)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농장 대응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기 때문에 베트남 환경당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환경영향 감시와 처벌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환경측정제어 및 분석기기 등 환경산업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가구지출 규모가 경제성장률을 웃돌게 되어 유기농, 안전한 먹거리, 소형자동차, 생활소비용품 산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2017년 베트남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점검, 한국무역협회).

### 기후변화

베트남은 기다란 국토와 3260km에 달하는 해안선, 남중국해에 연해있는 자연환경 여건상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취약한 편이다. 강우 여건은 통상적으로 11월~3월 건기와 4월~10월 우기로 나뉘는데, 급격한 패턴변화로 이러한 구분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 건기에는 강우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염수침투로 농작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남부 메콩강 델타지

역은 2016년 유량감소와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의 맹그로브림 감소와 토양침식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메콩강 델타 수계의 13개 省市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 사업도 2020년까지 100만톤/일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보고서(2014)에서는 2050년까지 베트남은 2000년 대비 기온 1°C 상승과 해수면이 28~3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극심한 홍수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변화와 삼림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2000년 135,795천톤에서 2011년 274,230천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크게 늘어났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0톤으로 주변의 아세안 국가보다는 높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에 의해 2000~2010년까지 1750만 CO<sub>2</sub>톤에 이를 정도로 대형 공장, 화력발전, 산림 흡수원의 조림 및 재조림 등 다양한 감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맹그로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메콩델타 수자원정보, 국가 생태회복개발, 댐건설과 재해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신재생에너지 확보용 수력댐 건설투자는 베트남이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REN21,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2016).

####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함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와 양허적으로 제공하는 借款(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 하에 외교부는 무상, 기재부는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집행은 각각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EXIM)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담당하고 있다.

ODA는 주로 인프라, 교통, 도시화, 의료, 교육, 자연에너지 등의 경제발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금융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8-2011년 10억 달러, 2012-2015년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연평균 3억\$에 이른다.

2011-2020년 단계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 및 2016-2020년 단계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베트남의 인프라, 교통, IT, 과학기술적 인적자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종합전략계획(CPS)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총 원조의 70%를 주로 우선 영역인 행정관리, 교육, 상하수도 프로젝트 및 의료 그리고 교통에 투자하며, 나머지 30%는 기타 분야에 투자한다.

앞으로 재무협력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교류 협력 방향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2016-2020년 기간 동안의 금융협정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에 15억 달러 규모의 ODA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에서 9억 달러는 재무협력을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 성장 발목잡는 부정부패

일본은 2008년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단을 전격발표 한 적이 있다. 매년 10억엔 내외의 ODA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원조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호치민시에서는 일본 ODA 자금으로 도로공사하면서 일본 컨설팅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에서 관련회사를 조사한 후 베트남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조치 없자 원조중단을 선언하여 응우옌쑤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사죄하고 호치민시 관련자를 구속하였다.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생활과 풍습에서 비롯되는데, 베트남 공무원은 두 가지 급여가 있다고 하여 정해진 월급 외에 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배당받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메콩델타 수상시장



하노이 랜드마크72



서북부 산악지역 소수민족



시민의 휴식처 하노이 서호



하노이 시내의 오토바이 행렬



화빈성의 화빈수력발전소



독립과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드렁럼전통마을 보까이다이브영 사당



하노이 엑스포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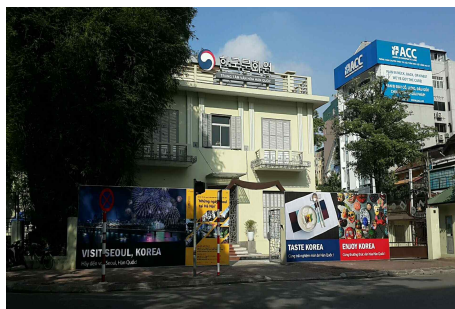
깃바섬의 깃바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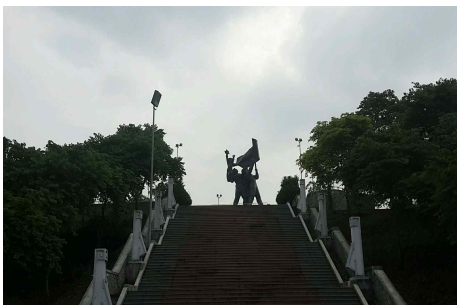
하노이 시내 BRT 정류장



하노이과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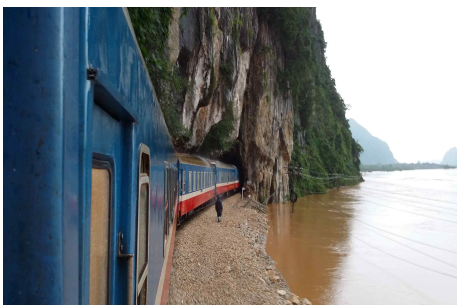
하노이 한국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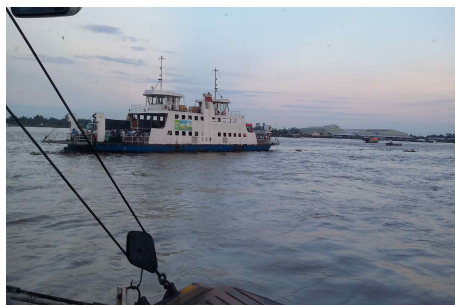
디엔비엔푸 전승광장



남북분단의 상징 히엔르엉다리



황빈성의 홍수로 잠긴 농경지



메콩강 룡수엔의 차도선